

### 공군 군종병 선발 수계 5년 이상 6명

공군은 군법당에서 근무하며 군종법사의 지도하에 사무행정 및 군종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불교계 군종병 6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수계 5년 이상으로 수계 증명서와 군종특별교구 또는 재직 사찰 주지 스님의 추천서 등 소정의 양식을 첨부해 병무청에 13일까지 서류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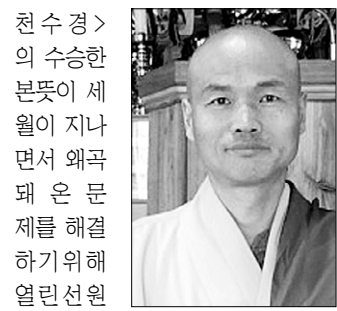
서류 전형 후 12월 2일 계몽대 종교센터에서 불교상식, 가지관 등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합격 공지는 12월 14일로 입대는 1월 18일이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 천수경으로 '소리선' 공부

### 열린선원 22일부터 '노래로 배우는 천수경 법회' 봉행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경전 중 하나인 <천수경>을 한글로 뜻을 쉽게 풀어 음악으로 공부하는 법회가 열린다. <천수경>은 불자들이 항상 독송하는 경전이지만 불자들 대부분은 뜻을 알지 못하고 소리만 따라 외우는 경우가 많다. 천수경 첫 구절인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만화영화에서 마법사의 주문으로 잘못 알려져 <천수경> 독송을 기복적 미신, 저주라고 흔히들 오해하고 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세속에 떠들어 더러워진 심신, 입을 씻어낸다는 의미다.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입으로 지은 갖가지 죄업을 깨끗이 씻어내고 비로소 부처님 말씀을 독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



태현 스님.

천수경 >의 수승한 본뜻이 세월이 지나면서 왜곡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선원(원장 법현, 대교종 총무원 부원장)이 '노래로 배우는 한글 천수경 법회'를 봉행하고 재가자들의 생활 속 수행을 지도한다.

1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법회에는 수필가, 명상음악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현 스님(수진암 주지)이 초청됐다. 태현 스님은 법회에서 최근 완성된 '한글 천수경 명상음악'을 교재로 경구의 뜻을 정확히 설명해 <천수경>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내용 외에도 각종 진언을 통해 소리선(禪)과 염불법(수인 염불) 등의 수행법도 함께 소개한다. 또 단전의 힘으로 진언 외우기, 손동작을 병행한 염불하기(수인염불법), 노래와 관음정진 회음 맞추기 등의 다채로운 수행이 진행

될 예정이다.

태현 스님은 "참가자들은 대중들과 함께 <천수경>을 노래로 부르고, 명상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며 자연스럽게 '나'를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며 "정진, 염불 등에서 우려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모니 등은 집중력 향상, 마음의 안정, 치매예방, 스트레스 해소, 업(業)의 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한글 천수경을 음악과 함께 반복해서 부르면 리듬을 타 쉽게 외워져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천수경> 독경 수행을 하게 된다. 그동안 뜻도 모르고 암송할 때와 달리 쉽게 의미를 알고 난 후에는 <천수경>의 무궁무진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거리 포교'로 잘 알려진 열린선원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내에 소재하면서 생활 속의 수행불교, 수행 속의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수행 전문도량이다. (02)386-4755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관무량수경' 첫 대중 강좌

### 서진 스님 서원사서, 30일까지 신청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인 <관무량수경>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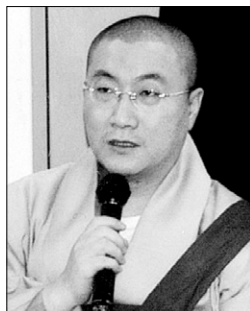
서울 서원사 주지 서진 스님이 12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수유사거리에 위치한 서원사 불교문화센터에서 <관무량수경>을 강의한다. 정토학 연구에 매진 해 온 서진 스님은 2006년 <무량수경 총요>와 <아미타경총>을 해설한 <불이정토론>(2006년)과 <정토삼부경>(2007년) 번역서를 낸 이후 처음으로 대중 강좌를 개최한다.

<관무량수경>은 범비사라왕이 와야할

아자세의 쿠데타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 남편과 아들의 고통상경을 지켜봐야 하는 위제의 왕비를 위해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다.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인간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펼쳐보이는 가르침인 것이다. 정토학을 연구하는 스님이 그리 많지 않아 <관무량수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좌도 흔하지 않다.

강좌에 참여하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이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02)983-7484

임연태 기자



서진 스님.

## 궁중점빈다례의식 29년만에 시연

### 명원문화재단 제14회 명원차문화대상시상식... 조유행 군수 등 수상

조선 후기 궁중점빈다례의식이 225년 만에 최초로 시연돼 세계인과 차인(茶人)들의 관심을 모았다.

(재)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1월 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1000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제14회 명원차문화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시상식, 2부 전통차 문화 다례, 3부 다식(茶食), 다서(茶書), 다기(茶器) 등의 전시회와 축하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에서는 정조 8년(1784), 고종 19년(1882) 당시 중국 칙사를 위한 궁중점빈다례 의식이 최초로 재연돼 화제가 됐다.

김의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는 다례를 사치로 보거나 의례중심의 문화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을 안타깝게 여기고 명원문화재단 설립자인 김미희 선생은 한국 차를 복원, 정립, 발표해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유산으로 복원시켰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축사에서 "차는 한잔의 마시는 음료를 넘어 시대정신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시공을 초월한 소통의 도구"라며 "국가 브랜드 가치, 국가산업,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다인과 명인들의 공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명원문화재단이 3일 하얏트호텔에서 고종 19년 중국 칙사를 접대하는 궁중점빈다례의식을 재연하고 있다.

제14회 명원차문화대상에는 국내의 차인들 중 차 문화·차 산업·차 교육 발전에 기여한 조유행 하동군수(공로상), 김애숙 명원하동군지부장(교육상), 황종래 국민대 명예교수(학술상)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수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조유행 하동군수는 수상소감에서 "초의 선사와 <동다송(東茶頌)>에 '동다(東茶)'는 하동차의 뛰어난 빛, 향, 맛을 극찬하는 것이다. 차 산업과 차 문화 발전에 하동이 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상을 수상한 김애숙 지부장은 "명원문화상을 수상한 것은 최고 영예이다. 더 많은 후학들에게 차 문화를 전달하라는 경책으로 알고 차 생활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다례의식 시연은 조선시대 궁중

의식, 궁중의상, 궁중예절, 궁중다기, 궁중음악 등과 함께 4부에 걸쳐 재연됐다. 시연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인 김의정 이사장이 <송정원일기>, <의주동록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225년 전 궁중문화로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다례의식은 김의정 이사장의 어머니인 명원 김미희 선생이 1980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초로 발표한 궁중다례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이후 처음이라 화제가 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재)명원문화재단, (사)한국다도총연합회, (사)홍차협회, 명원궁중다례원에서 공동주최하고 조계종,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대한불교교도연합회가 후원했다. 이상연 기자

### 신행에서란

●**벽안 수행자 초청특강**=상도선원은 11월 22일 오전 10시 하버드대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 크리스토퍼 거머박사, 11월 29일 오전 10시 송산스님 사상을 몸으로 펴가는 헝가리 출신의 청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2)815-3391

●**'숫타니파타' 집중수행**=충북괴산군 다보사 다보수련원은 11월 13~22일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법문은 <숫타니파타>(전재성 역)로 진행하며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행하기에 편리한 옷, 어깨나 무릎에 닿을 줄 등을 준비하면 된다. (043) 833-7789 cafe.daum.net/msosolgil

●**대구 위빠사나 수행법회**=대구 위빠사나 수행법회가 12월 6일 오후 2시에 대구 구도회에서 열린다. 법회는 교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제 24장

'몸의 흔들림은 위빠사나 수행과 양립할 수 있는가'로 진행된다. 위빠사나 법문, 경행, 좌선, 명상 순서로 요원 법사가 진행한다. (02)512-5258

●**참선집중수행**=해남 미황사는 11월 21~28일, 12월 12~19일 참선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집중수행은 참선 6시간,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론·화두간략·좌선·육조단경 법문, 다도 등을 주지스님인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하며 20~65세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참가비는 35만원으로 선착순 20명 접수받는다. (061)533-3521

●**동안기 결제 접수**=계룡 국제선원 무상사는 12월 1일~2010년 2월 28일 동안기 결제 접수를 받는다. 재가자는 최소 1주일 단위로 입방가능하며 스님은 전제 안거에 참가해야한다. 만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042)841-6084

## '학업성취' 학부모 기도 열기 HOT

### 수험생 위한 템플스테이 27일부터 백담사서

수능철이 다가왔다. 전국 사찰에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 둔 애대로 간절한 학부모들로 전국 사찰에는 기도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 11월 7일 수능 5일을 남겨 두고 수험생, 학부모 등 자녀들의 학업성취 발원 촛불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촛불기원법회는 명진 스님의 격려와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 2000여 명이 도량을 돌며 하나 된 마음으로 수험생들의 합격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기원했다. 그밖에

도 학부모의 편지 낭독, 수험생의 학업원만성취 발원문 낭독이 진행됐다. 또한,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합격을 기원하는 찰싹떡, 복주머니, 합장주, 오색실 등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도했다.

영월하기로 소문난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누구에게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속설을 따라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부쩍 늘어 3천~4천명, 주말에는 1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오고 있다. 자녀의 사

진을 좌복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해발 850m의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도 학부모들의 기도의 열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도 준비됐다. 인제 백담사주지 삼조는 제1회 '나의 꿈이 펼쳐질 저 하늘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27~29일, 12월 4~6, 11~13일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오랜 수행생활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미래 설계를 돕는다. 참가비는 10만원. (033) 462-5565

이상연 기자

##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진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선도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 벌여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땀물이 주무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컵물이 아니라 물핀 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분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갈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 자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자유능력이 있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

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차례 주입시켜 주었다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인데, 나의 의식이 생활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 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영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수 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서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수과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4차 : 환신 받고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수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서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시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을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삼봉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